

한국언론학사 재고

강 현 두 (서울대 신문학과 교수)

I. 머리말

우리 나라 대학에서 언론학 연구 또는 강의가 시작된 것은 약 40년전 부터이다. 그 이전에 1949년 서울대학교 문리대에 신문학 강좌가 잠깐 개설된 적이 있으나, 6·25로 곧 중단되었고, 1953년에 다시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952년에 연세대학교, 1956년에는 고려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에 신문학 강좌가 각각 개설되었다. 또한, 1953년에는 국내 최초로 홍익대학교에 신문학과가 설치되었다. 이런 연혁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대학에서 언론학 연구와 교육의 역사는 약 40년이 되는 셈이다.

그후 40여년이 지나면서, 한국의 언론학은 전국 31개 학과(관련학과 포함)에 2백여명의 전임교수를 포괄한 거대한 학문분야로 성장하였다. 먼저, 대학교수나 연구자의 수적인 면에서 볼 때, 한국의 언론학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언론학 교수들의 대부분은 과학적 연구방법과 통계학에 능통한 전문연구자(researcher)들로, 그 수가 세계적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아울러 한국에는 각종 언론학 연구소들이 많다. 이들 연구소에선 전문연구자의 주도 하에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많은 연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언론학회 역시 그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매년 다른 어떤 분야의 학회보다 더 많은 학술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언론학 교수들은 다른 어떤 분야의 교수들 보다 많은 세미나

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술연구와 자문 그리고 정책참여에 열띤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런 면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 언론학은 40여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외형상 선진국형에 가까운 모습을 갖추면서, 한국을 거의 미국에 다음가는 언론학의 나라로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학의 현실은 “위기”라고 말해도 그리 과장이 아닐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위기란 바로 언론학 교육의 문제이다.

대학의 학문활동은 연구와 교육의 활동이므로, 언론학 분야도 역시 학문적 연구 못지않게 언론학 교육 또한 중요하다. 연구(research) 활동이 교수를 위한, 그리고 교수 중심의 언론학 활동이라고 한다면, 교육(teaching) 활동은 학생을 위한, 그리고 학생 중심의 언론학 활동이다. 그런데 지난 40여년의 언론학사를 돌이켜보면, 교수를 위한 언론학 연구활동은 매우 화려하고 분주하였다 할 만큼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학생을 위한 언론학 교육활동은 정체를 면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의 성격 자체가 심하게 “오도”되기도 하였다.

현재 전국 31개 대학 학부과정에 언론(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2백여명의 언론학 전임교수가 가르치는 학생이 학부과정만도 약 5천여명에 이르며, 매년 1천 2백여명의 언론학 전공 대학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다(차배근, 1993, p. 57). 더욱이 전국에 있는 각 대학 신문방송학과의 입학 점수는 다른 학과와 비교하여, 거의가 최상위권에 들어있다. 따라서 각 대학의 신문방송학과에는 일반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되어, 4년간의 언론학 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한 그 많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기자나 PD, 광고인, 또는 영화감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저널리스트가 되고, 방송인이 되고, 광고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대학의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좌절과 실망이 깊어지는 것을 느낀다. 비록 최근 들어 언론학을 전공한 졸업생들 중에 기자나 PD 또는 광고인이 된 사례가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재능과 능력에 따른 높은 입사성적 때문이지, 대학교육을 통해 얻은 언론학

적 지식과는 거의 무관하다.

이러한 교육적 현실과 직면하여, 도대체 우리는 지금까지 이들을 위해서 어떤 언론학 교육과 연구활동을 하여 왔던가 반추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 교육적 차원에서 우리 언론학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언론학사의 차원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한편, 한국 언론학에서 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선 이미 언론학회 차원에서 인식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단적인 예로, 지난 1989년에 ‘한국언론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언론학 교육의 성찰」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 및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이밖에 서울대의 차배근 교수는 우리 언론학의 교육적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연구논문(1987, 1989, 1991, 1993)을 발표하였고, 한양대의 이강수 교수(1973)도 연구를 행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와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주최한 언론학 관련 국제 학술회의에서 한국의 언론학 교육 문제가 논의된 바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와 논의들은 대체적으로 언론학 교육에 관한 사적인 기술과 당면한 문제의 제기였을 뿐, 그 문제의 연원을 역사적 맥락에서 짚어보는 학사론적 조명은 아니었다. 본 연구는 ‘현실은 역사적 산물’이라는 전제하에 언론학이 현재의 특성과 문제점을 지나게 된 데는 역사적 근원이 존재한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한국 언론학사의 올바른 재정립과 오늘날 우리 언론학의 과제 해결 및 방향정립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보아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 언론학 연구와 교육의 발달에 관한 지금까지의 역사적 서술과 견해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내적 모순의 심화를 한국 언론학의 외형적 성장과 발전에 수반된 역사적 산물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1956년 이후 한국 언론학을 꾸준히 지켜보았고, 1967년 이후 연구와 교육에 직접 참여하였다. 그래서 이 연구는 본 연구자가 40년 언론학사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여, 한국 언론학사의 의미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정리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서술은 한국 언론학 발달사에 대한 한 사람의 개인적 관찰사라 하겠으며, 미래의 언론학사 연구를 위해 개인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가 있다.

II. 한국 언론학사에 대한 일반적 이해

지금까지 연구, 기술된 한국 언론학 교육과 연구의 역사는 주로 광복산, 임근수, 박유봉의 학사관과 그 서술을 주로 따르고 있다. 광복산은 그의 『언론학 개론』에서 한국 신문학 교육의 역사가 3단계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 초기 대학에서의 신문학 교육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1971, p. 38).

“우리 나라의 ‘신문학’이 대학의 정규과정으로 자리잡기까지에는 세단계로서 형성되었다. 그 출발은 조그마한 학원시대로, 그 다음 단계는 몇개 대학의 발전적인 신문학 강좌시대이다. 이러한 역정을 거쳐 대학에 신문학과가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대학의 정규적인 신문학 강의는 1949년 4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광복산 담당 신문학개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6.25전란으로 중단되었다가 서울수복과 함께 광복산씨의 신문학개론은 2년 동안 계속되었다.”

임근수도 그의 회갑논총 『한국신문학 오십년사』에 수록된 「한국신문학의 성립과 발달」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1977. p. 6).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에서 국내 최초의 신문학강좌를 개설하고 광복산 교수로 하여금 이를 담당케 하였다. 6.25동란으로 이 강좌는 중단되었으나 서울이 수복되면서 다시 개설하여 광복산, 이해창, 천관우, 박권상, 김규환, 이상희 등의 교수순으로 담당됨으로써 얼마전까지 진행되었다. 이어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에서 1952년 신문학 강좌를 개설하였는데 광복산 교수가 담당하였다. 수복이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에서 오주환 담당, 이화여대 문리대에 서 최완복 담당, 중앙대 법정대학에서 광복산 담당으로 신문학강좌가 개설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54년 3월 홍익대학이 국내 처음으로 정규 신문학과를 설치, 인가를 받으므로 곧 창설에 착수했다.”

박유봉도 『한국신문학 오십년사』의 「신문학과와 창설과 발전」이라는 글에서 이와 유사하게 서술하고 있다(1977, pp. 211-212).

“한국 최초의 대학에 있어서의 신문학강좌는 1949년 1학기부터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에서 광복산 교수 담당으로 개설되었다. 6.25동란으로 중단되었다가, 서울 수복 후 다시 광복산 교수에 의해 계속되었다. 강의명은 신문학개론이었는데 문리대 문학부 상급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과목이었다. 그 뒤에도 이해창, 김규환 등이 동교에서 강좌를 맡았었다.(중략)

연희대학교 문과대학에서도 1952년 2학기부터 광복산 교수에 의해 신문학개론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고려대학에서는 정경대학 정치학과 교수이고 고대신문 주간으로 있었던 오주환이 1956년 신문학개론을 강의하였다. 이화여자대학에서는 1956년 문리과대학에 신문학강좌를 개설하였다. 강의는 최완복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54년 3월에 홍익대학이 국내 최초로 정규 신문학과를 설치인가를 받아 다음 해에 학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이 유사한 논문이 한국언론학사에 관한 대표적이며 표준적인 서술이라 하겠다. 이후 언론학사에 관한 여러 연구나 서술들은 이들 세 선구적 연구의 학사적 관점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언론학사에 대한 근래의 연구로는, 차배근(1987, 1989, 1991, 1993)이 한국 언론학 교육과 연구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언론학사를 여러번 언급한 바가 있고, 추광영(1983)도 ‘한국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그 역사와 현재의 위치’에서 한국 언론학사를 언급하였다. 안광식(1989)은 한국언론학회 30주년을 맞아 학회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학사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강수(1973)도 ‘한국 신문학 교육의 문제성과 방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앞의 세 교수는 전통적인 언론학사의 서술을 따른 반면, 이강수는 초창기 신문학 교육에 대한 의미의 해석을 다소 달리하는 견해를 취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언론학사에 대한 전통적 그리고 표준적 이해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광복산은 1947년 전문 언론인의 양성을 위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하고자 신문학원을 창설하였다. 광복산의 신문학원은 신문학에 관한 단기 교육과정을 둔 학원 수준의 기관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저널리즘 교육기관으로서 신문학 교육을 하였다.

대학 차원의 교육으로는 광복산이 최초로 1950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신문개론’ 강의를 시작하였으나, 6·25로 중단되었다가, 1953년 다시 서울대 문리대에서 광복산에 의해 신문학 개론이 시작되었고(박유

봉, 1977, pp. 117-118)¹⁾, 이어서 연희대, 고려대학, 이화여자대학에도 신문개론 과목이 개설되었다.

1953년에는 홍익대학에 독립된 신문학과가 설치되었으니,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학과였다. 이 때 박복산이 중심이 되어 최준, 임근수 등이 이 학과의 저널리즘 교육에 참여하였다. 또한 박복산은 1957년 두번째 신문학과를 중앙대학에 창설하였다. 박복산은 1959년에는 한국신문학회를 창설하였고, 초대 학회장에 취임했다.

이러한 표준적 이해에서 두드러진 점은 한국 언론학 교육의 초창기에 박복산 교수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박복산의 신문학 그룹인 최준, 박유봉, 임근수 등이 한국 신문학 교육의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신문학원의 창립은 새로운 우수한 기자의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박복산(1977, p. 72)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초기 신문학 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대체적으로 직업적 저널리즘 교육이 실시되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국언론학사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실제 교육내용은 신문의 역사, 언론의 자유와 책임, 언론윤리 등 주로 규범적 성격의 과목들로 채워졌었다. 이와 관련해 이강수는 초기 한국의 저널리즘 교육에 관해 이렇게 적고 있다(이강수, 1973, p. 72).

“초기 신문학교육의 몇몇 선구자들의 구상 내지 당면목표는 커뮤니케이션 일반의 이론적 교육에 있었다기 보다는 기자양성을 위한 실기교육에 오히려 지향성이 강했던 것 같다. (중략).

그런데 초기 신문학교육의 당면목표는 저널리스트 양성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과과정의 내용은 뉴스스 취재보도나 편집기술 등의 실기 위주의 교육도 아니며,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의 이론 위주의 교육도 물론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문적 직업교육이라고도 볼 수 없는 모호성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70년대 이후에 쓰여진 한국 언론학 교육과 연구에 관한 글에는 초기 박복산의 신문학이 다뤘던 영역과 개념이 좀더 확대된 형태가 매스 커뮤

1) 그러나 이해창 교수는 자신이 1953년에 서울대 문리대학에서 강의를 위촉받았다고 그의 회갑논문에 쓰고 있다. 또다른 기록을 보면, 이강수 교수의 회고에서도 1953년 서울대 문리대 신문학 강의는 이해창 교수가 행하였다고 한다.

니케이션의 개념과 연구영역이라고 보면서, 한국 언론학의 발전사를 광복산 신문학의 진화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언론학 변천사에 대한 이같은 설명은 광복산 신문학의 시대에서 서울대 신문대학원의 김규환 언론학의 시대로 옮겨가는 학문과 학회의 변천과정에 연속성을 부여하려는 설명으로 여겨진다. 광복산, 최준, 임근수, 장용 등이 이끌었던 50년대의 한국 언론학이 확대되고 과학화된 것은 70년대의 커뮤니케이션 과학이라는 “주장”은 특히 『언론학개론』에 실린 광복산 자신의 글들에 잘 나타나 있다.

실제로, 60년대 들어 여러 대학에 신문방송학과가 설치되면서, 신문학은 저널리즘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 그 내용과 형식이 바뀌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신문학의 공식적인 학문명이 되었고,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신문학 이론을 대체하고, 연구방법은 실증적이고 과학적 방법이 도입되어, 이들 이론과 방법론을 익히는 것이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교육이 한국 신문학의 당연한 지향점이 되었다.

한국 언론학의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특히, 1968년 서울대학교에 신문대학원이 설치된 사실을 두고서, 한국 언론학계는 한국 언론학에 있어서 교육규모의 ‘대형화’이고, 언론학 이론의 진보된 ‘사회과학화’이며, 보다 다학문적인 내용을 갖춘 ‘연구의 심화’라고 자부하였다. 이에 관해 서울대 신문대학원장 김규환 교수는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그 과거와 전망”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1983, p. 79).

“이 초기단계가 한층 더 발달하여 한국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학문의 연구가 본격화한 것은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를 모체로 1968년에 신문대학원이 설치되었을 때였다. 그와 아울러 매스커뮤니케이션연구가 다시 활기를 띠고 1970년도 부터 많은 석사논문이 발표되는 가운데 경험적 연구가 한국의 커뮤니케이션연구 가운데에 정착하게 되었다. 1959년이래 부진상태에 있던 한국신문학회가 1968년부터 활동을 재개하여 이때부터 커뮤니케이션研究는 새로운 발전기를 맞이하여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어서 미국에서 실증적 학풍을 배워온 학자들이 교단에 서기 시작하면서 정치·세련된 실증적 연구방법론이 이식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과학으로서의 한국 언론학 연구와 교육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듯, 미국의 과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익히고 귀국하는 연구자들이 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언론학 교육은 대학원 시대로 접어들었다. 주요 대학의 언론학과는 석·박사과정을 서둘러 개설하였다. 그리고 세련된 방법론과 외국의 여러 이론을 도입, 정착시키려는 데 적극성을 보여 주었다.

Ⅲ. 초창기 언론학사와 그 변화의 흐름

여기까지가 우리 언론학사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지만, 이러한 역사서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된다.

첫째, 광복산의 언론학에서 김규환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옮겨가는 한국 언론학의 변화는 교육의 진화발전인가 아니면 학문과 교육의 단절인가.

둘째, 언론학의 '사회과학화'는 학문과 교육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셋째, 이와 같은 변화는 교육과 연구의 내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우선, 한국 언론학사는 흔히 광복산의 「신문학 강좌」에서 시작, 김규환의 매스 커뮤니케이션론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흐름으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볼 것인가. 이 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대학교 문리대에서 시작된 대학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교육의 역사는 광복산의 「신문학」과 함께 3년차로 천관우의 「매스컴론」이 어느 정도 병립되어 발전되어 왔다는 데서 문제가 제기된다.

즉, 지금까지의 한국 언론학사론은 광복산, 이해창에 이어 천관우, 김규환이 문리대에서 「신문학 개론」 강좌를 맡았던 것으로 기록하여, 「신문학 개론」을 초기 매스 커뮤니케이션학 교육의 주류로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동시대에 서울대에 광복산의 「신문학 개론」과 함께, 천관우의

「매스컴론」이 사회학과에 개설되어 강의되었다. 이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 언론학사는 처음부터 이원적으로 발달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문학 개론은 본래 문리대 사회학과와 이상백 교수의 구상에 의해 개설된 강좌이다.²⁾ 이는 아마도 이상백 교수가 광복산과 이해창의 신문학 강좌에 부족감을 느끼고, 좀 더 사회학 또는 사회과학으로서의 신문학론이 필요하여 다시 「매스컴 강의」를 천관우에게 요청, 개설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백은 저널리즘을 「이데올로기의 사회학」이라는 사회과학의 한 영역으로 보고, 매스컴의 이해를 매우 중시하였는 바, 이데올로기 사회학으로서의 저널리즘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1953, p. 8).

“「저널리즘」은 현대에 있어서 소위 communication의 중요한 수단 방법이요, 이 mass communication이란 현대에 있어서 대중의 사회태도(social attitude)라든지 「이데올로기」를 직접 간접으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사회적 태도의 교환이다. 일정한 사회적 태도를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사회적 태도를 변용하고, 이로서 그들을 어떠한 행동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게 되면 이것을 선전이라고 한다. 「저널리즘」이 반드시 선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저널리즘」이 현대사회에 생활하는 우리들의 사회태도를 결정하고 충동 또는 변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1953년부터 2년동안 광복산 이전 이해창에 의해, 그 후 다시 광복산에 의해 「신문학 개론」이 문리대 문학부의 강좌로서 강의되고 있는 동안, 1955년부터 별도로 천관우의 「매스컴론」이 문리대 사회학의 강좌로서 강의되었고, 그 후 홍승면, 그리고 김규환 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본 연구자는 1957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광복산의 「신문학 개론」과 천관우의 「매스컴론」을 직접 수강한 바가 있다. 이 두 강좌는 모두 사회학과에 의하여 개설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관련 학과목이었지만, 강의 내용과 접근방식(approach)에 있어서 서로 다른 계열의 언론학 과목이

2) 이강수 교수의 회고에 의하면 1953년 이해창 교수의 신문개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저널리즘이 사회학에 왜 주요한 영역인가를 밝히면서 과목개설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한다.

자 내용이었다. 즉, 하나는 실무적 저널리즘에 관한 내용의 강의였고, 또 하나는 사회과학적 매스컴론이었다. 당시 본 연구자가 직접 수강한 「신문학 개론」은 일반 문과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사회학 교양강좌의 성격을 띠었으며, 신문의 특성을 이해하는 실무적 내용을 주로 강의하였다. 반면 「매스컴론」은 사회학 전공 학생을 위한 소규모 강의로 거시적인 (macro) 사회이론과 매스컴론으로 대중론, 여론형성, 매스 미디어 효과론 등을 다루었다. 말하자면 Lazarsfeld, Lasswell 등 40년대 시작된 미국 커뮤니케이션학의 매스컴론이었다. 당시 사회학 과목의 하나로, 전통적 저널리즘과 다른 새로운 매스컴론적 언론학의 등장에 대해 천관우의 설명은 이렇다(1955, pp. 12-13).

“「매스·컴퓨터이론」이라는 신어는 2차대전 전후 대체로 1940년에서 45년 사이에 미국에서 유통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략)

중전에는 여론형성의 수단으로 신문이 거의 유일한 것이었던 것이 그 후 「라디오」의 등장과 보급, 영화의 「토오키이」화와 대중화, 「텔레비전」의 출현 등 「컴퓨터이론」의 「메디아」가 기술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왔고 종래의 「저널리즘」의 개념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시야가 전개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에서 언론학 교육은 처음부터 “실무적 저널리즘론”의 언론학 과목과는 별도로 “사회학적 매스컴론”의 언론학이 있었다. 실무적 저널리즘의 신문학 강좌는 그후 폐강되었고, 사회학적 언론학의 「매스컴론」은 천관우에 이어 1960년대 홍승면, 그리고 1961년에 김규환으로 이어졌다. 후자는 또한 1964년 서울대 신문연구소와 1968년 서울대 신문대학원 개설을 계기로 사회과학화된 새로운 학문체계의 독립된 언론학으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1961년에 김규환으로 이어진 사회학적 언론학은 ‘매스컴 연구 4비조’의 이론들에 매우 가까운 미국적 매스컴론이었다. 이는 당시 김교수의 강의내용이 거의 미국 대학의 매스컴론 내용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새삼 확인될 수 있다.³⁾

결국, 다시 말해서, 초창기 문리대 사회학과와 「매스컴론」은 이미 미국적이었으며, 그것이 대학원 차원으로 발전된 형태가 서울대 신문연구소의

3) 본 연구자가 1963년 미국 보스턴 대학에 가서 수강한 매스컴론과 김규환 교수의 강의는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사회과학적 언론학이라 말할 수 있다. 김규환은 서울대 신문연구소학보 창간호에서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근원적인 사회과정으로서, 매스컴 연구는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수학, 언어학 등에서 학문적 관심대상이며, 이전 인접과학 특히 여러 사회과학의 참여가 필요한 학문임을 강조하였다(김규환, 1964).

뿐만 아니라, 1950년대에 이미 문리대 사회학과에서 이만갑은 그의 사회조사 방법론 강의와 연관된 매스 미디어 실태조사에서 매스 미디어 행위를 연구하였다. 이만갑은 1960년 그의 「한국 농촌사회 구조 연구」에서 머튼(R. Merton)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발견한 것처럼, 한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흐름에 있어서 “영향력자(influential)”의 존재를 발견함으로써 Lazarsfeld의 「커뮤니케이션 2단계 흐름」과 유사한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1950년대 말부터 매스 커뮤니케이션 조사가 언론사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문리대 사회학과가 흔히 이 조사를 위촉받게 되었다. 사회학 교수들은 현대사회 성격을 논하는 사회학 연구에서 매스 미디어의 문제를 즐겨 다루었다. 예컨대, 고영복은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논하였으며, 김채운은 대중사회론적으로 매스 미디어를 논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볼 때도, 광복산의 저널리즘과는 별도로, 문리대 사회학과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연구와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나아가 처음부터 「매스컴론」과 「저널리즘론」은 서로 병립되어 발전되어 왔음을 인식할 수가 있다.

한편, 1964년에 이만갑은 김규환과 함께 서울대학에 신문연구소를 개설, 대학원 수준의 1년 과정 교육을 수행하였고, 1967년에는 그 교육과정 자체가 신문대학원으로 승격되었다. 이와 별도로, 1966년부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과정은 A코스와 B코스로 분리되었으며, A코스는 사회학 전공과정이었으며, B코스는 신문학 전공과정이었다. 이리하여 서울대 문리대의 사회학과는 언론학을 석사과정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이와 같은 서울대 사회학과와 언론학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은, 광복산이 서울신문학원에서 시작하여 몇몇 대학에 신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홍익대학과 중앙대학에 독립된 신문학과를 열어, 신문학과 시대를 개막했고, 이어서 이화여자대학, 한양대학 등에 신문학과가 만들어져 발전해 왔

다고 이해하는 광복산류의 신문학과 교육 및 연구의 전통과는 다른, 또 하나의 매스컴학이 사회학과의 매스컴 교육 및 연구의 전통을 물려받아 오늘날 한국의 언론학으로 이어져 왔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70년대에 이르면서 신문학과 매스 커뮤니케이션학의 통합은 저널리즘 교육과 연구의 발전적 확대라고 보는 오늘날의 역사서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보다는 오히려 실무적 저널리즘 교육의 막이 내려지는 단절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흡수, 통합된 것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 따라서 한국의 저널리즘 학문은 미국의 그것처럼 인문학에 뿌리를 두고, 언론의 실무적 이론을 연구 교육하는 것으로 발전되지 못한 채, 일찍부터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매스컴론으로 일반화되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 연구는 신문대학원을 중심으로 대학원 차원에서 실증적 사회과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커뮤니케이션학 교육은 다른 여러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학부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IV. 언론학 교육의 변화와 그 의미

그렇다면, 이제 두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언론학의 ‘사회과학화’가 학문과 교육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대학원 과정의 커뮤니케이션학이 연구(research) 지향의 사회과학적 연구과정이라면, 대학 학부과정의 커뮤니케이션학은 인문주의적이며 실무이론적이어야 하는 것이 미국식 저널리즘 교육이지만, 우리의 경우엔 그렇지 못했다. 광복산류의 「신문학」은 실증적이지 못했고, 그나마 학문적 전통마저 끊어져 학부의 언론학 교육 또한 사회과학화되었다. 또한 이같은 흐름 속에서 당시 각 신문방송학과를 창설하고 이끌었던 초창기 교수들은 실무경험이나 교육적 경험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학부의 언론학을 인문주의로, 또 저널리스트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이끌기에 역부족을 느껴기도 하였다.

이렇듯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저널리즘 교육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문주의적이고 실무적인 언론학 교육에 앞장섰던 두 사람의 교육자를 여기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두 사람은 한양대학교의 장용 교수와 중앙대학교의 최진우 교수이다. 장용은 실무언론인 출신일 뿐만 아니라, W. Williams의 미조리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였고, 최진우는 국문학을 전공한 작가이면서 동시에, 언론활동을 한 실무 저널리즘 전문 교수였다. 그러나 김규환류의 사회과학적 언론학이 지배하는 분위기에서 실무 저널리즘적 언론학과 연구자는 한국 언론학의 '주변부'에만 머물게 되었고, 그 후 장용, 최진우 두 언론학 교수는 애석하게 타계하였다.

미국의 저널리즘 교육사를 살펴보면, 그 1세대에는 경험 많은 언론인들이 학계에 와서 그들의 산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한편, "자국의 저널리즘학"을 체계화하고 이론을 정립하였다. 미국의 저널리즘 교육은 처음부터 산학협동적인 차원에서 출발하였고, 따라서 현실에서 이론이 나와 만들어진 학문이었다. 하지만 초기 광복산류의 신문학은 이같은 방식을 도입할 수가 없었다.

한편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4 비조"의 연구가 그러하듯, 사회과학자들의 학문적 활동인 '연구(research)' 활동이 중심이었지, 학부의 교육 활동과 함께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저널리즘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교육적으로 통합되는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까지도 미국은 학부의 언론학이 "실무 저널리즘 교육의 특색"이 살아있는 반면, 리서치 중심의 학문연구는 대학원의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맡겨져 있다.

V. 교육 및 연구의 내용적 변화

70년대 중반에 이르자, 미국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아 귀국하는 연구자의 수가 늘어났다. 당시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사회과학적인 경우가 주류를 이뤘는데, 이 무렵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통계적 처리 방법이 크게 발전하면서, 이른바 '이론과 방법론(theory and

methodology)’이 학문 분야를 풍미하게 되었다. 70년대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학계에서 ‘T & M’(theory and methodology)이 새롭게 각광을 받던 시대이다.

이러한 ‘T & M’을 익히고 한국에 돌아온 70년대 중반 이후의 언론학 연구자들은 학부과정의 인문주의적 언론학 교육이나 실무적 저널리즘 교육 보다는 대학원 차원에서 “과학적 연구” 활동을 하기를 선호하였다. 그리고 학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기 보다는 연구자(researcher) 또는 학자가 되고자 열망하였다. 따라서 한때는 거의 모든 언론학 교수가 ‘T & M’을 전공으로 삼은 적도 있었다. ‘T & M’은 언론학 교수에게 새로운 학문적 지위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T & M’은 학문적 권위의 상징이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실무적이어야 할 학부교육은 교육적으로 점차 황폐화되었고, 또한 여기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은 갈수록 더 멀어져갔다.

70년대에 들어서 대학마다 대학원 석사과정을 설치한 데 이어, 70년대 말과 80년대 초부터는 대학마다 박사과정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는 바, 이는 언론학의 ‘사회과학화’가 보다 심화되는 과정임과 동시에, 교육보다 연구가 강조되었던 당시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1978년에는 고려대, 79년에는 연세대 신문방송학과가 각각 박사과정을 설치하였으며, 80년대에는 한양대가 1980년에, 경희대가 1981년에, 성균관대가 1981년에, 중앙대가 1982년에, 서강대가 1983년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설치하였으며, 중앙대의 광고홍보학과도 1989에 박사과정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모두 8개 대학의 8개 신문방송학과와 1개 광고홍보학과에서 박사과정의 대학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차배근, 1993, p. 5). 또 대학마다 연구소가 창설됨에 따라 한국 언론학의 “연구프로젝트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VI. 맺음말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학 차원에서 한국의 언론학 연구와 교육은 처음부터 이원적이었다. 초창기에는 실무적 저널리즘으로서의 언론학과 사회

과학으로서의 언론학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연구와 교육을 발전시켜 왔다. 전자가 광복산의 언론학이라면, 후자는 사회학의 언론학이었다. 그러다가 광복산의 언론학이 김규환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옮겨가고, 신문대학원의 언론학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언론학은 급격히 ‘사회과학화’되었고, 실무적 저널리즘 연구와 교육은 발전적 변화과정을 겪기 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종말”을 맞게 되었다.

또한 언론학의 사회과학화로 언론학 교수들은 지나치게 연구 중심의 학문적 활동에 치중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80년대의 한국 언론학은 대학원에서 언론학 이론연구를 발전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학부의 언론학 교육은 더욱 더 메마르게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커뮤니케이션학은 오랫동안 너무나 연구 중심의 학문활동에만 관심을 기울여왔고, 교육자(teacher)로서의 역할에 대해선 소홀했다고 보여진다.

참된 학문적 교육은 무엇이고, 언론인이 되고자 하는 우수한 학부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현재로서는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오랫동안 사회과학주의에 빠져들었던 언론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인문주의의 회복과 더불어 저널리스트가 되는 실무적 이론과 실무교육에도 좀 더 관심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곽복산(1971). 신문학의 전개와 한국의 과제. 곽복산(편저), 『언론학개론』. 서울: 일조각.
- 김규환(1964).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방향. 『신문연구소학보』 제1집. 서울대 신문연구소.
- _____ (1983).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그 과거와 전망.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서울대 신문연구소.
- 박유봉(1977). 신문학과 의 창설과 발전. 『한국신문학 50년사』. 서울: 정음사.
- _____ (1977). 한국신문학교육의 개척자 牛堂 곽복산. 『한국신문학 50년사』. 서울: 정음사.
- 안광식(1989). 언론학회 30년의 과정 평가와 방향 모색. 『신문학보』 제24호, 한국언론학회.
- 이강수(1973). 한국신문학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신문학보』 제6집.
- 이상백(1953).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이데올로기 사회학적 반성. 『문리대학보』 제2권.
- 임근수(1977). 한국신문학 성격과 발달. 『한국신문학 50년사』. 서울: 정음사.
- 차배근(1987). 우리나라 신문방송학 교육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신문연구소학보』 제24집. 서울대 신문연구소.
- _____ (1989). 한국 언론학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언론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주제논문집』. 한국언론학회.
- _____ (1991). 한국의 언론연구와 교육. 『한국의 언론 I』.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_____ (1993). 한국에서의 언론학 교육: 그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은?. 『한·중·일 국제언론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서울대 신문연구소.
- 천관우(1955).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위한 서설. 『문리대학보』 제3권. 서울대학교 문리대.

추광영(1983). 한국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그 역사와 현재의 위치.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그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 서울대 신문연구소.